

# 임금격차 줄인다... 포스코, 3년간 협력사 7771억 지원

‘동반위 임금격차해소운동’ 동참  
POSCO 파트너스데이서 협약체결  
인건비 인상분, 복리후생 등 포함

포스코(POSCO)가 3년간 총 7771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활동을 협력사들에게 지원키로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임금격차 해소 운동’ 동참을 결정하면서다.

2일 동반위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달 30일 서울 테헤란로 포스코센터에서 ‘POSCO 파트너스데이’를 열면서 ‘With POSCO 동반성장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

포스코 협력사와 함께하는 파트너스데이는 동반성장 활동성과를 공유하는 행사로 올해가 10회째다. 여기에는 포스코 뿐만 아니라 포스코건설, 포스코컴텍,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등 계열사도 참여했다.

포스코는 지난 10월 동반위 8개 위원사와 함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우수 협력기업 직원 인센티브 등을 포함해 6150억



지난달 30일 서울 테헤란로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With POSCO 동반성장 실천 협약’ 행사에서 (왼쪽부터)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 회장, 포스코그룹 최정우 회장, 동반성장위원회 권기홍 위원장, 조선내화 이인욱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여기에 이번 협약을 통해 성과공유제, 생산성향상 등을 위해 904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4개 계열사도 이와 별도로 717억원을 협력기업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새로 제공키로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와 계열사 전체적으로 3년간 경영안정자금 6200억원, 임금지불능력제고 1305억원, 임금 및 복리후생 266억원을 협력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격차해소형 상생 프로그램〉

기업명	지원규모(3년)			주요 지원내용	
	임금 및 복리후생	임금지불 능력제고	경영안정자금		
포스코	148억원	1,246억원	5,660억원	7,054억원	▶임직원 인센티브, 인건비 인상분, 복리후생 지원
포스코그룹사	118억원	59억원	540억원	717억원	▶성과공유제, 민관공동R&D ▶스마트공장, 안전강화 비용, 벤처창업 지원
합계	266억원	1,305억원	6,200억원	7,771억원	▶경영안정자금 지원

동반성장위원회

여기에는 ▲임직원 인센티브, 인건비 인상분, 복리후생 ▲성과공유제, 민관공동 연구개발(R&D) ▲스마트공장, 안전 강화 비용, 벤처창업 ▲경영안정 등을 위한 지원금이 두루 포함돼있다.

또 포스코그룹은 협력기업과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제값 쳐주기, 제때 주기, 현금 또는 상생결제로 주기 등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도 철저히 준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1차 협력기업은 2차 협력기업과의 동반성장 활동을 위해 노력하는 동

시에 관련 혜택이 협력기업 직원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키로했다.

권기홍 동반위 위원장은 “성과공유제를 최초 도입한 동반성장 선도 기업인 포스코그룹이 협약을 통해 협력기업과의 임금격차 해소와 더불어 함께 발전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기로 약속했다”면서 “협력기업 간의 출혈경쟁, 품질 저하 문제를 야기시키는 과도한 저가 낙찰 방지를 위해 그룹사 전체가 노력하겠다는 의미 있는 동반성장 실천의지를 보였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현대중, 사장단 워크숍 개최

현대중공업그룹이 지난 1일 강원도 강릉 씨마크호텔에서 사장단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그룹의 올해 경영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각 사별 내년도 경영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새롭게 취임한 사장들의 각오와 목표 등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현대중공업지주 권오갑 부회장(왼쪽 여섯 번째)과 현대중공업 가삼현 사장(왼쪽 다섯 번째), 현대중공업 한영석 사장(일곱 번째) 등 임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 ‘LA 오토쇼’ 장식한 SUV “주인공은 나”

현대차 대형 SUV ‘팰리세이드’ 등  
글로벌 완성차업체 잇따라 신차 선보

글로벌완성차업체들이 공개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들이 지난 28일 개막한 2018 LA 오토쇼에서 빛을 받고 있다.

2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SUV 국내신차등록대수 비율은 지난 2014년 24.8%에서 2017년 32.8%까지 높아졌다. 커다란 차체, 넓은 적재공간, 안전성 외에도 각종 IT기술을 갖춘 SUV들은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이번 오토쇼에서 7~8인승 대형 SUV 팰리세이드를 선보였다. 엔진은 국내 판매 사양 기준 3.8리터 가솔린과 2.2리터 디젤이 탑재됐다. 전자식 4륜구동 시스템 ‘H트랙’을 장착했으며 험로 주행 모드도 갖추고 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연계해 차로 중앙 주행을 구현한 ‘차로 유지보조’, 후방 접근차를 감지해 경고하거나 멈추는 ‘후방 교차 충돌 방지보조’, 고속도로 곡선 구간에서 일시적으로 감속 또는 가속을 제한하는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도 적용했다.

BMW는 SUV ‘뉴 X7’을 공개했다. 뉴 X7은 3열 시트를 갖춘 7인승 모델로 BMW의 대표적인 대형 SUV 모델이다. 뉴 X7의 엔진 라인업은 가솔린 2종(40i, 50i)과 디젤 2종(30d, M50d) 등 모두 4종으로 구성됐는데, 이 가운데 M50d는 최고



지난 28일 개막한 LA 오토쇼에서 공개된 현대자동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팰리세이드 /연합뉴스

출력 400마력, 최대토크 77.5kg·m의 힘을 발휘한다.

링컨은 7인승 대형 SUV ‘올 뉴 에비에이터’를 선보였다. 이번 오토쇼에서 공개된 ‘링컨 에비에이터 그랜드 투어링’에는 링컨 브랜드 최초로 트윈 터보 3.0리터 V6 엔진과 최첨단 하이브리드 기술이 적용됐다. 게다가 ‘폰 애즈 어 키(Phone As A Key)’ 기능이 있어 운전자는 스마트폰으로 시동을 걸 수 있으며 차량을 열고 닫을 수 있다.

올-뉴 에비에이터는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모델로 나오며 국내에는 오는 2019년 하반기에 출시될 전망이다.

피아트크라이슬러(FCA)그룹은 지프의 5인승 중형 픽업 트럭 ‘올 뉴 지프 글래디에이터’를 선보였다. 올 뉴 지프 글래디에이터는 오는 2019년 하반기에 V6 3.6리터 펜타스타 엔진을 얹은 가솔린 모델을

출시하고 2020년에는 V6 3.0 디젤 모델을 선보인다. 가솔린 모델에는 8단 자동 변속기 또는 6단 수동 변속기가 적용될 예정이다. 디젤 모델에는 8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된다. 트림별로는 스포츠, 스포츠 S, 오버랜드, 루비콘 등 4가지가 나온다.

혼다는 5인승 SUV ‘패스포트’를 공개했다. 신형 패스포트는 CR-V와 파일럿 사이를 담당하는 모델로 보강된 모노코크 프레임과 최고출력 280마력을 발휘하는 3.5L 직분사 i-VTEC V6 엔진, 독립형 서스펜션 및 9단 자동변속기 등의 조화를 이뤘다.

한편 지난달 30일 일반인 관람을 시작해 오는 9일까지 이어지는 LA 오토쇼에는 전 세계 40여개의 완성차업체가 참가해 60종 이상의 신차를 공개한다.

/정연우 기자 yw964@

## 르노삼성, SM7 최대 115만원 할인

연말 ‘굿바이 프로모션’ 진행  
신차 구매고객 특별할인 혜택



르노삼성 QM6

르노삼성은 연말을 맞아 12월 한 달간 신차 구매 고객들을 대상으로 개별소비세 추가 지원, 저금리 금융상품을 포함한 조기 출고 고객 특별 할인 등 다채로운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르노삼성이 선보인 ‘굿바이 프로모션’은 SM6를 비롯한 전 차종(마스터, 전기차 제외) 구매 시 개별소비세 0% 추가 지원, V7 내비게이션, S-Link 패키지 등 추가 옵션 중 한가지를 선택 제공한다. ‘개별소비세 0%’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한 개별소비세 3.5%에 해당하는 금액(차종/트림별 차량 기본가격 기준)을 추가 지원하는 프로모션이다.

개별소비세 0% 추가 지원을 선택하면 트림별로 ▲SM6 70만~100만원 ▲QM6 75만~110만원 ▲QM3 70만~80만원 ▲SM7 80만~115만원(19년형 선택 시 35만원 추가 더할할인) ▲SM5 60만~70만원 ▲SM3 45만~60만원 ▲르노 클리오 60만~70만원이 제공된다.

차종별로 추가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다. ▲SM6, QM6는 S-Link 패키지 I 또는 패키지 II 무상 장착(QM6 GDe RE 시

그니처 트림 선택 시 매직 테일게이트 추가 제공) ▲SM5 V7 내비게이션 무상 장착, ▲SM3 V7 내비게이션 또는 스마트 커넥트 II 무상 장착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전 차종(마스터, 전기차 제외) 조기 출고 고객에게 SM6는 60만원, 나머지 모델들은 20만원의 추가 현금을 지원한다.

전기차 구입 고객을 위한 다양한 혜택도 마련되었다. 국내 유일의 준중형 세단 전기차 SM3 Z.E. 현금 구매 시 500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36개월 할부 구매 시 무이자 혜택과 함께 250만원 할인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초소형 전기차 르노 트위지 구매 고객에게는 약 30만원 상당의 측면 창문 옵션 무상 장착과 함께 현금 구매 시 100만원 할인, 할부 구매 시 50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양성운 기자 vs@

## 쉐보레, 말리부 최대 560만원 할인

이달 한달간 ‘메리 쉐비 페스타’  
임팔라 최대 630만원 파격조건

쉐보레가 12월 한달간 ‘메리 쉐비 페스타’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연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스파크 최대 270만원, 트랙스 최대 340만원, 말리부 최대 560만원, 임팔라 최대 630만원에 이르는 파격적인 판매 조건을 마련했다.

이밖에 스파크, 트랙스, 말리부, 임팔라 등에 최대 60개월 무이자 가능한 할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스파크는 월 10만원으로 스파크

를 구입할 수 있는 10년 초장기 할부 프로그램을 지난달에 이어 연장 운영한다. 전 트림에 걸쳐 기본 130만원을 할인하고 기본 할인 미적용 시 LG 트림 건조기를 출고 기념품으로 제공한다.

한편 라보와 다마스는 최대 140만원을 할인하며, 1.9% 36개월의 저리 할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내 퍼포먼스 스포츠카 시장의 새로운 지평을 연 쉐보레 카마로SS는 2018년형 모델을 대상으로 최대 550만원을 할인한다. /정연우 기자